

'12년말-'13년초 난초류 수출 동향

□ 수출실적

○ 중국 준절대비 주 수출시기 연도별 비교

(단위 : 톤, 천불, %)

구 분	2011.11.1~2012.2.5(A)		2012.11.1~2013.2.5(B)		증감률(B/A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전 체	1,571	10,600	1,558	10,749	△0.8	1.4
난초(분화)	1,552	10,475	1,517	10,375	△2.3	△1.0
양란(절화)	19	125	41	374	46.3	33.4

* 주 수출국 : 중국(97%), 기타(미국, 일본, 러시아)

□ 수출동향 및 향후전망

○ 중국 자국산 심비디움 품질향상에 힘입어 한국산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된 양상으로 '12년말 본격출하초기 수출량이 주춤하였으나 본격 수출 중·하반기에 중국산과의 경쟁력 강화차원 가격조정노력으로 전년수준의 수출실적으로 마감

- 수출초기 가격비교 : 중국 곤명산 150위안/분(꽃4대) vs 한국산 흑자가격 250

- 수출초기 품질경쟁 : 한국산 심비디움의 전반적 품질이 중국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여전하나, 기존 주력품종인 황색대륜계(양귀비, 러블리문 크레센트 등)의 국내산 작황이 저조했던 반면, 중국산 188-3(황색계열 다화성으로 고품질 품종)이 초기 대량방출되어 가격인하경쟁을 심화요인 작용

○ 금번 심비디움 수출상황 악화, 내수경기부진(호접란 등 타인기품목 영향)으로 인한 국내 심비디움 가격 하락으로 농가 어려움 발생

○ 중국 수출편중화 현상 해소를 위한 러시아, 베트남, 태국 등 신규 시장개척노력이 필요

(농산수출팀 화훼수출 담당 장혜영 대리, 전화 02-6300-1446)